



Media Scrap

기획처 대외협력과

충북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 개발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동양일보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02면 종합



히포크라테스 선서 24일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서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임동빈〉

충청매일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02면 종합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친다” 24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2010 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서 졸업생들이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photo@ccdn.co.kr

충청투데이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23면 종합

부모가 추천한 책 선물한다

충북대, 입학식서 편지와 함께 전달

충북대(총장 김승택)가 다음달 2일 열리는 2011학년도 입학식에서 새내기 학부모들의 편지와 추천 도서를 신입생들에게 함께 선물하기로 해 남다른 사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새내기들에게 학부모들이 감동 받았던 책, 여러 생각거리를 주는 책,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녀와 같이 읽고 싶은 책 등을 자필 편지와 함께 추천하고, 대학은 이 책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추천도서 목록(50권)은 각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올해의 책과 대학출판부에서 권장하는 책 리스트를 함께

소개하고 그외 학부모가 직접추천하는 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택 충북대 총장은 “갈수록 책 읽기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성인으로서의 사고력, 창의성과 융합능력 등은 독서를 통해 키울 수 있으며, 대학시절의 독서습관은 평생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쓴 편지는 충북대 출판부 홈페이지(<http://web.chungbuk.ac.kr/~presscb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대의 올해 신입생은 3265명이다. 김규철 기자 qc280@ccctoday.co.kr

忠清日報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13면 사람

11학번 새내기 희망 첫발 응원

충북대학교, 내달 2일 신입생 입학식

학부모 편지·추천 책 선물 행사 마련

충북대학교가 아주 특별한 신입생 입학식을 준비해 화제다.

충북대는 오는 3월2일 개신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1학년도 신입생 3265명에 대한 입학식에서 새내기 학부모들이 직접 쓴 따뜻한 자녀사랑이 담긴 편지와 그들이 추천한 책을 학교에서 구입해 신입생들에게 선물한다.

충북대 출판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지의 세계로 새출발하는

새내기들에게 학부모들이 감동 받았던 책, 여러 생각을 주는 책,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녀와 함께 읽고 싶은 책 등을 자필로 쓴 편지와 함께 추천 받고, 대학은 부모가 추천한 책을 직접 입학식에서 편지와 함께 전달한다.

추천도서 목록(50권)은 각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올해의 책과 대학 출판부에서 권장하는 책 리스트를 함께 소개하고, 학부모가

직접 추천하는 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택 총장은 “갈수록 책 읽기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성인으로서의 사고력, 창의성과 융합 능력 등은 독서를 통해 키울 수 있다”며 “대학 시절의 독서 습관은 평생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돼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쓴 편지는 추후 충북대 출판부 홈페이지(<http://web.chungbuk.ac.kr/~presscb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섭기자

wedding20045@ccdailynews.com

충청매일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02면 종합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입학식

충북대, 자녀사랑 편지 등 이벤트 마련

충북대학교가 부모님 편지와 책으로 여는 특별한 입학식을 개최한다.

충북대는 다음달 2일 개신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1학년도 신입생(입학인원 3천265명) 입학식에서 새내기 학부모들이 직접 쓴 따뜻한 자녀사랑이 담긴 편지와 그들이 추천한 책을 학교에서 구입해 신입생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충북대 출판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지의 세계로 새 출발하는 새내기들에게 학부모들이 감동 받았던 책·여러 생각거리를 주는 책·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녀와 같이 읽고 싶은 책 등을 자필로 쓴 편지와 함께 추천 받고, 대학은 부모가 추천한 책을 직접 입학식에서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추천도서 목록(50권)은 각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올해의 책과 대학출

판부에서 권장하는 책 리스트를 함께 소개하고 학부모가 직접 추천하는 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대 김승택 총장은 “갈수록 책 읽기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성인으로서의 사고력, 창의성과 융합능력 등은 독서를 통해 키울 수 있다”며 “대학시절의 독서습관은 평생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쓴 편지는 추후에 충북대 출판부 홈페이지(<http://web.chungbuk.ac.kr/~presscbu/>)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병갑기자

충청타임즈

충북대 입학식 ‘뜻깊은 선물’

신입생 3265명에 부모님 편지·추천 책 전달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는 올 신입생 3265명에게 학부모가 직접 쓴 편지와 추천한 책을 학생들에게 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대 출판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독서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추천도서는 학부모 자신이 감동 받았거나 생각거리를 주는 책,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녀와 같이 읽고 싶은 책 등을 선정해 편지로 작성토록 했고, 추천 도서는 학교에서 구입했다.

추천도서 목록(50권)은, 각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올해의 책과 대학

출판부에서 권장하는 도서 목록과 학부모가 추천한 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충북대 김승택 총장은 “갈수록 책 읽기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성인으로서의 사고력, 창의성과 융합능력 등은 독서를 통해 키울 수 있고, 대학시절의 독서습관은 평생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북대 신입생 입학식은 3월2일 오전 11시 이 대학 개신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금란기자

충북대, 전공과목 상대평가 논란

“학생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갑자기 전공과목 평가를 상대평가제로 바꾸면 어떡하나요?”

충북대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공과목에 대한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현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키로 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대는 현재 교양과목과 경영대학 내 전공필수 과목에 대해서만 상대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영대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 외에는 전공선택과목 수업을 골라서 듣는 등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대는 이같은 실정에도 이를 모든 단과대학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1일과 18일 학사 설명회를 가졌다.

11일 설명회는 학생회 간부들이,

학교측 “학생 교육수준 향상 기대”

학생들 “취업경쟁 불리” 반발 확산

18일은 각 학과 대표 등이 참석했으나 전체 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는 물론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다.

학생들은 성적 평가방법을 상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취업 시 타 대학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간·기말 시험을 칠 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평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 K씨는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로 바꾸려면 미리 학생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지도 없고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말만

떠돌고 있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L씨는 “11일 학사 설명회에 학생회 간부들이 참석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학교 측에서 다른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대로 추진할 것 같다”며 “학생회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신해 많은 학생이 상대평가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씨는 “타 대학에서 상대평가제가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취업이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학생

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고 한번 띄우지 않고 상대평가제로 바꾸는 것은 학칙에 위배된다”며 “18일 열린 학사 설명회에서도 학생들 의견을 무시하고 학칙 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 말을 잊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학교는 평가방식을 전환할 경우 학생들이 학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아질 것 이란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전공과목 상대평가 운영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며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아직 개정학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 규칙이 마련되면 재정 학사운영 등으로 공포할 예정이다”며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생기자

충북일보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02면 종합

도내 7개 대학 518명 추가모집

2011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이 충북도내 7개 대학에서 518명을 모집한다.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도내 대학은 충북대 43명, 충주대 59명, 극동대 94명, 서원대 54명, 세명대 42명, 영동대 184명, 중원대 42명 등이다.

추가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원서접수·사정·합격자발표·등록순으로 진행한다. / 김병학기자

충청투데이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J05면 종합

윤여표씨 오송첨단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식약청장을 지낸 윤여표(55) 충북대 교수가 24일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3명에 대한 후보자 심사를 실시, 윤 교수를 최종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초대 이사장

윤 교수는 대전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충북대 약학대학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학술위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을 지냈다.

윤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첨복단지는 조만간 4명의 센터장을 뽑는 등 본격적인 인력수급에 나설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하숙비 담합” 대학생들 뿔났다

경희대 재학생인 김모(24)씨는 최근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1년 넘게 살고 있는 하숙집의 주인이 인근의 다른 하숙집 주인들과 집 거실에 모여 앉아 회의를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김씨는 “하숙집 아줌마들이 서로 하숙비를 놓고 언쟁을 벌이더라. 얼마까지 올려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토론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학비, 식비, 주거비 등 3종고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잔뜩 뿔이 났다. 치솟는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하숙과 자취집 주인들이 담합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시내 5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하숙비담합해결을 위한공동제소추진위원회는 24일 이화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주인들 모여 인상 폭 결정... 큰손 입김도”
서울 5개大 총학, 피해사례 수집 제소 추진

지역 대다수 하숙집이 일제히 하숙비를 올리고 있는데다 많은 하숙생들이 담합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숙집의 불법담합에 의한 피해사례를 수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하숙집 보증금도 담합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하숙집은 보통 무보증금의 월세 형태. 하지만 보증금 중 일부를 매달 하숙비로 빼가거나 일정 기간 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하숙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원일(25·성균관대 경제4)씨는 “2005년 입학 후 처음 하숙을 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는 곳이 전혀 없었

는데 제대 후 복학하고 나니 보증금을 받지 않는 하숙집이 없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인근에서 하숙을 하는 최모(24)씨도 “지난해 주인이 ‘보증금을 받아야겠다. 안 그러면 다른 하숙집 주인에게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보증금이 생기면서 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김모(21·성균관대 신문방송3)씨는 “하숙비가 너무 비싸고 생활도 불편해 8개월 만에 나왔다”며 “주인이 남은 보증금 4개월 치(40만원)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언쟁을 벌인 끝에 20만원만 받고 나왔다”고 언짢아했다.

과거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시

세를 조종한 것처럼 하숙비 담합과정에 이를 주도하는 리더가 있다고 한다. 몇 군데의 하숙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주인이 주변 하숙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정모(22)씨는 “학교 근처 하숙집 주인 중에 소위 ‘우두머리’가 있어 이들의 결정에 따라 가격이 대부분 결정된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다. 이들이 올리면 다들 따라서 올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하숙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부식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고려대 근처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A(58)씨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 우리도 방값을 올리는 등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의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ath@hk.co.kr

남보라기자 rrrrr@hk.co.kr

조교 '폭언 교수' 소송 보도 이후 전국서 제보 봇물

“나도 교수에 당했다” 학생들 뿔났다

고려대 의대 조교가 교수의 부당한 폭행·폭언과 노동력 착취 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서울신문 2월 24일자 10면) 이후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24일 쏟아진 제보는 지역과 전공을 막론했다. 호남 지역에서 의대를 나와 얼마 전 서울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산부인과 의사 L씨는 “서울 모 대학 산부인과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폭행으로 유명한 곳인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해도 교수들의 입김으로 무마됐다.”면서 “의대 졸업생으로서 개탄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에서 영문과 석사과정에 있는 K씨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다른 학생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야밤에 공원으로 불러 다짜고짜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토로했다. 서울 지역 공대 박사과정에 있는 K씨는 고대 의대에서 불거

●의사 L씨

“폭행 당한 전공의4년 끔찍
고소해도 교수입김에 무마”

●석사과정 K씨

“논문 문제점 지적한다고
건방지다며 얼굴 때려”

●박사과정 K씨

“고대 의대 사례는 양반
명품백 바치고 집청소도”

진 사례는 ‘양반’이라고 표현했다. K씨는 “이공계는 교수님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눈 밖에 나면 비싼 등록금 내기 어렵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교수 출퇴근시키기, 딸 과외선생 노릇하기 등을 직접 해봤고 여교수의 경우 조교들이 돈을 모아 명품백을 사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교수 경조사를 챙기고 잔심부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 봉사’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총학생회가 등록금·청년실업 등 현실 문제에 당면하면서 감시 기능을 잃었다.”면서 “교수들의 부당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학 평위원회·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교수사회도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대 학생연합 김형욱 대표는 “유사한 사건이 생길 경우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신고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와 해당 교수는 말을 아꼈다. 고려대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어떤 입장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면서 “소장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라고만 밝혔다. 해당 B교수는 “현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3일간 치르는 졸업식... 서울서 연 입학식선 '골든벨 퀴즈'...

대학행사 형식파괴 “축제의 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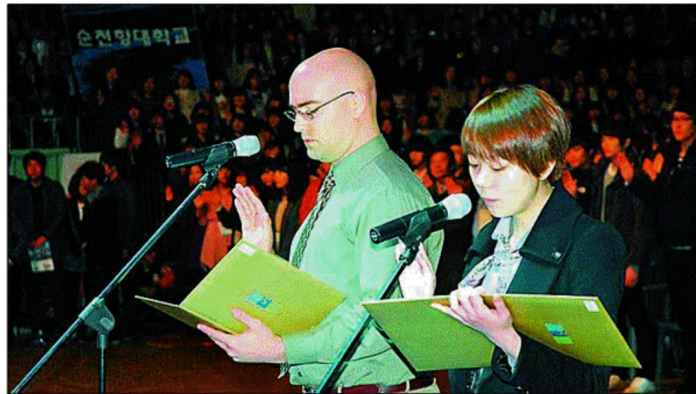
■ 충남지역 대학 '뜻 깊은 변신'

충남지역 대학들의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관행처럼 해오던 오리엔테이션을 아예 없애 일정을 간소화하는가 하면 MT를 봉사활동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새내기 환영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순천향대 신입생 환영식은 신입생 학부모 재학생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건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신입생의 70%가 수도권 출신임을 고려해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승자에게 하계방학 중 어학연수와 장학금을 주는 '도전 골든벨 퀴즈',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단체 장학제도 취업프로그램 생활관 등을 소개하는 캠퍼스 안내,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손풍삼 총장은 “매년 사회적으로 신입생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음주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 입학식을 아예 건전한 축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순천향대 신입생 환영식. 글로벌을 지향하는 의미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선서를 하고 있다. 순천향대 제공

'만취 오리엔테이션' 등 '나쁜 관행' 앞다퉂 타파 봉사활동 겸한 MT도

제라는 개념으로 개최했다”고 말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23일 교내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가진 데 이어 오리엔테이션을 신입생 2938명과 학부모가 '소통과 대학생활'을 주제의 특

별 강의와 대학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듣는 행사로 치렀다. 이 대학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입생 전원이 2박 3일 동안 콘도 등을 빌려 대대적인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21, 22일 1박 2일로 교내 기숙사에서 열린 선문대 오리엔테이션은 아예 신입생과 학부모를 함께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석대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는 내달 중순 열리는 수련모임을 '장애인

과의 동행'으로 대신한다. 학생 105명과 장애아동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면 및 목욕 훈련, 휠체어 릴레이 체험, 각종 장애물을 이용한 이어달리기, 장애아동과의 축구 등을 함께한다.

● 졸업식 형식파괴

졸업식을 하루에 끝내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여는 학교도 생겼다. 3일간 졸업식을 치른 건양대는 16일은 대학원 및 인문계열, 17일은 사회 및 자연, 예체능계열, 18일은 보건의료 및 공학계열로 나누어 진행했다. 학위증을 대표 학생에게만 주지 않고 참석학생 모두에게 각각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83세의 김희수 총장이 3일 동안 학위증서를 일일이 전달하는 노익장도 과시했다.

공주대 서만철 총장도 졸업생 전원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전달했다. 학장과 학과장, 지도교수가 졸업 기념 후드를 졸업생 목에 직접 걸어줬다. 공주대는 멀티 캠퍼스인 까닭에 졸업식을 여러 번 연다. 24, 25일 오전 오후로 나눠 예산과 천안, 공주의 캠퍼스에서 단과대학별 학위수여식만 4번을 갖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대학가 등록금 환불뒤 '먹튀' 비상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등록... 환급받아 잠적
비싼 공업계열 타깃·추가합격기간 악용 사기

충북 대학가가 등록금 환불 사기로 비상이다.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요즘 기승하는 사기수법은, 대학 합격증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마친 뒤 타대학에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환급 받아 잠적하는 식이다.

실제 도내 A대학은 지난해 추가 합격자 20여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뒤 타대학으로 옮기겠다고 등록금을 환불받고 잠적했다.

최근에도 10명의 지원자가 동일한 주소로 원서를 제출해 불합격 처리를 하면서 불상사를 막기도 했다. 등록금 환불 사기자들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한 일반 전형을 선택하고, 특히 등록금이 비싼 공업계열을 타깃으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대학 관계자는 "원서에 청원B고 졸업, 자택은 청주, 거주지는 성남으로 기재된 학생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직장 때문에 성남에 와 있다고 말해 의심이 들어 자택 전화를 걸었더니 결번이었다"며 "추가등록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하루단위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5년이 지난 86년생부터 88년생 지원자들이 많으며, 주로 사용

한 자택 주소로 △성남시 수성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 입학처는, 합격자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때마다 자택 전화,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등을 상세히 물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 친구끼리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해 기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환불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도내 대학에는 '사취의심 등록금 환불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공문이 발송됐다. 사취의심 사례를 보면, C대학의 경우, 대학에 문의해 등록금이 가장 많은 학과를 파악한 후 집단적으로 해당학과에 입학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임에도 장학금 수혜

를 거부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록금 반환 요청하러 방문했을 때 이동 예정 대학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계좌 입금만 주장할 때, 연고, 출신 학교 등이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IP에서 신청할 때 등이다. 등록금 환불 사기의 공통점은, 주소지가 동일하고, 연락처가 핸드폰 번호로 표시, 개인 반환을 요구, 이동예정 대학 확인시 합격사실이 없는 점 등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환불할 때 개인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에 이관한 뒤 지급하거나 이동할 대학으로 등록금을 이관해 주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을 환불한 뒤 잠적한 결과는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로 간주돼 학교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중도일보



거점국립대 총장 협의회 송용호 충남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24일 오후 대구 인터볼고엑스코호텔에서 전국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거점 국립대 법인화 공동 노력 및 우수인재집중지원 등에 관해 논의했다.

‘줄 서는 것’ 보다 ‘실력 인정’ 필요

도내 대학들, ‘김인혜 교수 사건’ 여파

‘도제식(徒弟式) 교육’ 사태 대책 대두

충북도내 대학들도 김인혜 서울대 음대교수의 ‘도제식 교육’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식 교육이란 장인을 만들기 위해 밑바닥부터 엄하게 훈육하는 교육 방식으로 스승의 기량을 그대로 전수하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교육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관계자들은 이같은 도제식 교육은 음대뿐만이 아니라 미대와 의대, 체대 등에 널리 퍼져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음대와 미대, 의대, 체대의 경우 도제식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생과 교수들의 주장이다.

박재희 청주대 교수는 “이번 서울대 사건의 경우 도제식이나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일부 교수의 도덕 불감증이 문제다”라며 “교수가 제자들을 엄하게 훈육하면서 인격체로 대했다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A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대는 물론 미대, 체대 등 예체능계의 도제식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교수 밑에서 오랜 시간 ‘무보수 시대’로 일하는 건 대학생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한번 입학해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지도교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수업은 이번 서울대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B교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찍히면 끝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느 교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향후 취업이나 활동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강사자리 하나라도 건지려면 실력에 빌붙어야 한다”며 “라인보다 실력을 인정받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서울신문

2011년 02월 25일 금요일
012면 사회

〈오전9시~오후5시 근무〉

1세미만 자녀 둔 女공무원 ‘9 to 5’

서울시 출산·육아 장려 개선책

성과상여금 출산공무원에 가점

서울시가 24일 여성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책을 내놨다. 영유아 자녀를 두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 93명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정규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유

연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10% 이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1399명으로 10%를 적용하면 140명이 된다.

유연 근무제는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따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 근무제’ ▲주거지 인접 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제’ 등이 있다.

시는 성과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 공무원에 대한 출산 가점도 올해부터 부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인의 성과 상여금이 1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충주대와 철도대학의 조속한 통합을 기원한다



오늘의 칼럼



인인식

〈충주대 나노고분자 공학과 교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충주대학교(총장 장병집)와 한국철도대학(총장 최연혜) 사이의 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윤진식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충주대학교와 철도대학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각계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 위원회를 조기 가동하고 정부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이 그 시작이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두 대학 사이의 통합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작년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철도대학 통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충주대학교로의 통합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미루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충주대학교의 입장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걸고 있을 정도로 장병집 총장의 지휘하에 통합을 위한 실무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단순한 개별 대학의 통합으로부터 발생할 불협화음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통합 대학(가칭 한국교통대학)의 특성화를 위하여 철도 및 교통분야 학과와 단과 대학을 신설하는 등 통합 대학의 특성화

를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으로 통합 대학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윤진식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출발하는 철도대학 통합추진위원회의 발족은 단순히 충주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염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충주대학교의 통합은 국토 균형 발전 및 충북 동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철도대학이 가지고 있는 철도 및 교통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프라가 충북 주력 육성 사업인 태양광산업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충주대학교와 결합될 경우 단순히 구조로만 그치는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대학이 교통 관련 중부권 거점 대학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철도대학의 입장으로서 충주대학교 보다 더 좋은 대학과의 통합을 바라는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대형화되고 다른 특성화

를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 거점 대학들과의 통합은 통합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의 통합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달성하고, 통합 후의 교통, 에너지 분야 특성화를 위한 실무적 준비, 통합대학의 재도약을 위한 당위성, 충주대학교 재학생 및 구성원들의 단합된 통합에 대한 희망, 지역 사회 및 지역민들의 전폭적 지지 등 이 모든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충주대학교 및 충주시는 철도대학과의 통합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관련 정부당국과 철도대학은 충주대학교의 이와 같은 염원에 대하여 조속한 응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철도대학과의 통합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통합대학이 새로운 교통 분야 특성화를 통하여 중부권 명문 대학으로 재도약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